

## 대학생 상대 검찰수사관 사칭 전화금융사기 발생

검찰수사관을 사칭 하여, “피해자 명의 대포통장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어 확인하여야 한다  
며 피해자를 기망하고 인터넷상에서 문화상품권을 구입하도록 한 후 일련번호를 사진촬영  
후 보내도록 하여 1,492,500원 상당을 편취한 것임.

### □ 발생일시 및 장소

2019. 3. 26. 11:00경 대전 소재 00대학교 강의실 내

### □ 관련자 인적사항

- 피 해 자 : 김 0 0(19세, 여, 대전 소재 대학교 학생)
- 피 의 자 : 성명불상

### □ 피해품

문화상품권 1,492,500원 상당

### □ 사건개요

- 피의자는 '19. 3. 26. 11:00.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“서울중앙지방검찰청 김00 수사관이다. 현재 피해자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명의가 도용이 되어 중고나라에 거래가 되고 있으니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”며 피해자를 기망하고 인터넷 상에서 3회에 걸쳐 문화상품권을 구입 하게 한 후 일련번호를 사진 찍어 전송하도록 하여 1,492,500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임.

### □ 범죄수법 특성

- 가짜 검찰청사이트로 유도 후 수사진행 중인 것처럼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토록하고, 위조 신분증(검찰수사관) 및 위조 수사서류를 메일이나 전화기로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수사 중에 있다고 기망함.
- 피해자에게 사기사건과 관련이 없다면 스스로 피해자임을 입증하도록 강요하여 지시에 따르도록 하고, 수사 중이므로 비밀유지 하지 않으면 비밀누설죄로 처벌한다고 협박하여 함구함.